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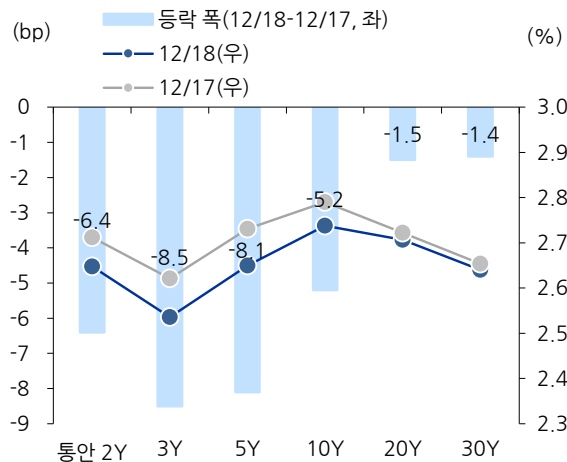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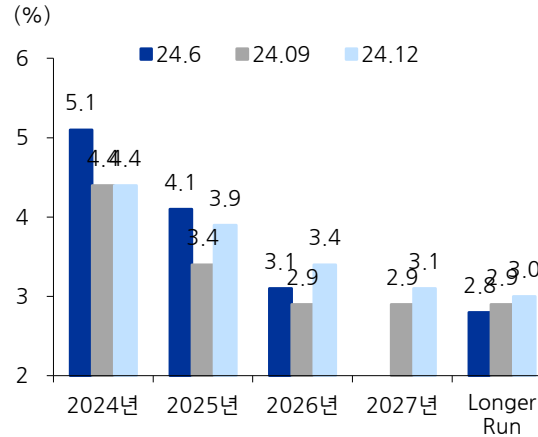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12/1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536%	-8.5	0.0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738%	-5.2	4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20.2	16.9	15.6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08	23.0	31.0
	10년 국채선물(KTB)	118.85	53.0	-45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359%	11.1	20.4
	미국채 10년물	4.518%	11.8	24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15.9	15.2	11.8
	독일국채 10년물	2.243%	1.4	11.7
	호주국채 10년물	4.279%	-1.8	9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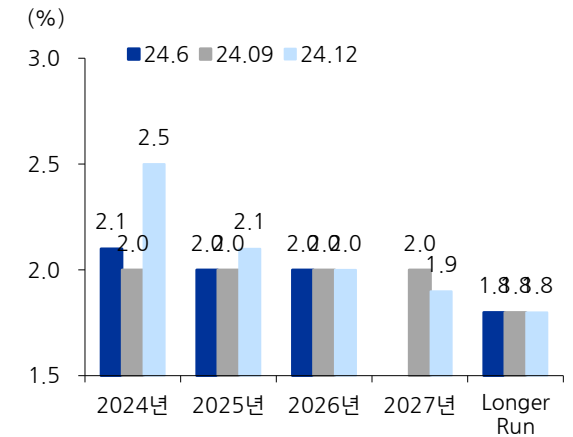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12월 FOMC 연준 정책금리 전망치



12월 FOMC 연준 성장률 전망치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한은 총재 비둘기 발언 영향
- 전일 미국채 흐름 따라 강세 출발했으나, 이내 FOMC 앞둔 경계로 강세폭 반납. 한은 부총재보, 추가 인하는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종합해 판단할 것을 언급
- 오후 중 한은 총재 발언 소화 후 급격히 강세 시현. 총재, 경기 심리 위축을 우려하며 조기 추경 등 통해 경기 부양 필요 강조. 빅컷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선을 그었으나, 빅컷 언급만으로도 매수세 강하게 유입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매파적 인하 여파
- 12월 FOMC, 예상대로 25bp 인하. 다만 내년 인하 전망 횟수는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. 내년과 내후년 인하 횟수도 축소, 인하 속도 조절 의지가 강하게 드러남
- 올해와 내년 실질 성장률·물가 전망치도 상향, 실업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함.
- 파월, 현재 정책 기조는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 평가. 인플레이 강해지면 인하속도 더 늦출 수 있고,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아직 연구 중이라 언급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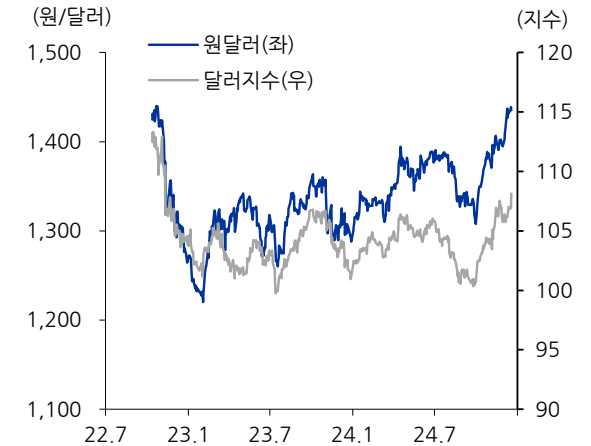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12/18일	1D	1W	YTD
원/달러	1,435.50	-0.2%	0.2%	11.5%
달러지수	108.14	1.1%	1.4%	6.7%
달러/유로	1.037	-1.2%	-1.2%	-6.2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32	0.4%	0.5%	2.7%
엔/달러	154.69	0.8%	1.4%	9.8%
달러/파운드	1.258	-1.0%	-1.3%	-1.2%
헤알/달러	6.29	3.0%	5.6%	29.6%
상품 WTI 근월물(\$)	70.58	0.7%	0.4%	-1.5%
금 현물(\$)	2,592.63	-1.9%	-4.6%	25.7%
구리 3개월물(\$)	9,045.00	0.6%	-1.6%	5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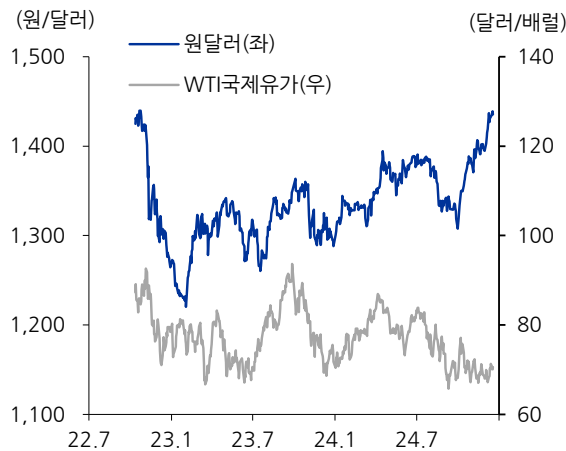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3.40원 하락한 1,435.5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39.10원 마감.
- 선거대일 대비 보험권에서 출발한 달러-원은 개장 직후 하락 전환.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확대 가능성이 제기.
- 이날 FOMC 대기 심리 속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총재의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고, 국내 증시도 전일 급락을 딛고 외국인 매수 속 상승하면서 환율 상승 진정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매파적 FOMC를 소화하며 급등.
- 연준은 예상대로 정책금리 25bp 인하했으나, 경제전망에서 내년 인플레이 전망치를 크게 상향하고 인하 전망을 4회 -> 2회로 축소.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정책이 상당히 덜 제약적인 영역에 진입했다고 평가.
- 트럼프 정책 영향이 전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 전망이 상향되면서 내년도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짐.
- 간밤 달러 급등 속 주요 통화는 일제히 급락했고 달러-원 NDF 환율은 1,450원을 상회. 당분간 원화 약세 압력이 더 이어질 전망